『칼빈연구』 | 제14집: 23-57

개혁파 예정론의 스펙트럼: 종교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김지훈(대신총회신학교, 교회사)

I. 서 론

2012년 높은뜻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통합측)는 온라인 상에서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는 특별히 칼빈의 예정론에 대하여 비판하며,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회개와 선택은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될 수 없는데, 그것은 당연한 도리요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당하는 멸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1] 이 논쟁이 오래 가지는 않았으나 장로교 안에서도 칼빈의 이중 예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말까지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던 한국에서 벌어진 이 예정론 논쟁은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하였던 종교 개혁 시대에 칼빈에게 있었던 하나의 논쟁을 생각나게 한다. 제롬 볼섹(Jerome Bolsec)과의 예정론 논쟁이다. 논자는 김동호 목사의 주장을 볼섹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후에 일어나는

1) 크리스천 투데이 목회 신학, 기사 제목: 김동호 목사 "예정론, '칼빈주의 대표사상' 아니다, 2012,7,12 일 기사.

개혁자들 사이의 논쟁에 비유하려고 한다.

1551년 볼섹은 칼빈이 개혁을 주도하던 제네바에서 예정론 교리를 거절하고 시를 혼란케 한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2] 당시 볼섹은 자신의 예정론이 다른 개혁 도시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웃 도시들을 증인으로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칼빈은 이 문제를 혼자 처리하지 않고 베른(Bern), 쮜리히(Zürich), 바젤(Basel)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 예정론에 대한 문제는 칼빈의 기대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모든 개혁파 도시들이 볼섹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모든 인정하였지만, 칼빈의 이중 예정론 역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3]

이 사건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16세기의 유럽의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도 역시 예정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예정론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종교개혁사 속에 꾸준히 나타난다. 서로 존중하는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칼빈과 비텐베르그의 멜랑히톤 사이의 예정론 논쟁이 그러했고,[4] 1618년의 도르트 총회(Dordrechter Synode, 1618-1619)에서 발생한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의 예정론 논쟁에서도 나타난다.[5] 물론 제네바 신학

2) 빌헬름 노이저, 『칼뱅』, 김성봉 역, 나눔과 섬김, 2000, 141-142; 양신혜, '칼빈의 예정론 이해,' 『한국개혁신학』 2016/49, 106: 볼섹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둘째, 볼섹은 예정 교리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고 죄의 제공자로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3) C. van Sliedregt, *Calvijns opvolger Theodorus Beza: Zijn verkiezingsleer en zijn belijdenis van de drieenige God, Brill*, 1996, 86-92; W.H. Neuser, *Prädestination*, 313, in CH: „Bolsec selbst hatte vorgeschlagen, die evangelischen Nachbarkirchen zur Prädestination zu befragen. Die Theologen in Basel, Bern und Zürich stimmten den Genfern aber nur halbherzig zu. Sie bejahten die Erwählungslehre, schwiegen aber zur doppelten Prädestination. Calvin war tief enttäuscht und machte seiner Enttäuschung in seiner Schrift Luft."

4) 마르틴 융, 『멜랑히톤과 그의 시대』, 이미선 역,(홍성사, 2013), 105-106.

5) 도르트 총회에서 벌어진 네델란드 레이든의 신학자 프란치스쿠스 고마루스(Franciscus Gomarus, 1563-1641)와 독일 브레멘의 신학자 마티아스 마르티니우스(Matthias Martinius, 1572-1630) 사이의 예정론 논쟁이나, 프라네커의 신학자 요한네스 마코비우스(Johannes Maccovius, 1588-1644)가 이단적 예정론을 가르친다고 주장한 프라네커(Franeker)시의 고소

자들의 이중 예정론이 네델란드의 도르트 국제 총회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얻어냄으로서 이중 예정론이 유럽 개혁 교회 안에서 큰 흐름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도 개혁파 신학자들은 예정론에 관하여 다양한 이해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도 베이커(J.Wayne Baker)에 의해서 이와 유사한 논쟁점이 제기되었다. 베이커는 그의 작품 『하인리히 불링거와 언약: 다른 개혁파 전통』(*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the other reformed tradition*)에서 먼저 개혁파 신학자들, 즉 칼빈과 불링거의 신학 안에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위치를 규명한다. 그에 따르면 칼빈의 예정론은 언약론을 하위에 두며, 그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은혜가 강조된다. 그러나 반대로 불링거에게 있어서는 조건적인 언약론이 예정론보다 우위를 선점한다. 이와 함께 베이커는 주장하기를 불링거의 예정론이 자신의 조건적인 언약론의 구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불링거는 어거스틴과 같은 무조건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일종의 조건적인 예정론을 내어 놓았고, 이것은 칼빈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개혁주의 전통'이었다고 정리한다.[6]

이에 비해서 개혁파 신학자들의 예정론의 일치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리처드 멀러(R.A.Muller)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논문 R.A. Muller, *Christ and the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The Labyrinth Press, 1986)에서 칼빈과 동시대의 신학자들에게서 공통되게 '그리스도중심적 예정론'이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로서 종교 개혁자들의 예정론

건 역시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의 예정론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6) J.W. Baker,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the other reformed tradition*, Ohio University Press, 1980, 165; 이러한 베이커의 주장에 대해서 베네마(C.P.Venema)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비록 불링거의 예정에 대한 형태가 칼빈과는 다르지만 그가 어거스틴적인 예정론을 주장하였다는 면에서, 칼빈의 예정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C.P. Venema, *Heinrich Bullinger and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Author of "the Other Reformed Tradition" ?*, Baker Academic, 2002, 118.

의 일치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립되는 두 입장은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의 예정론에 대한 비교가 의외로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개혁 교회의 범주 밖의 신학자들과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도 자신들 사이에서 예정론은 어느 면에서는 일치하기도 했지만, 어느 면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서 개혁파 교회 안에서의 예정론의 다양한 이해를 살펴보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그 당시의 개혁 신학을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논문을 통하여 예정론 논쟁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던 종교 개혁 1.5세, 혹은 2세들을 대표하는 개혁파 신학자들의 예정론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당시 개혁파 교회의 예정론의 범주에 대하여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주로 칼빈과 볼섹이 논쟁을 하였던 그 시대의 학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그 학자들은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던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1519-1605), 요한 칼빈(Johan Calvin, 1509-1564), 그리고 쮜리히의 개혁자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 그리고 독일의 신학자였던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hthon, 1497-1560)이다. 이들의 예정론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살펴 보고, 당시 개혁파 교회들의 허용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개혁파 신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주장, 아르미니우스(Jacob Arminius, 1560-1609)의 예정론을 비교해 본다면 개혁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예정론의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II. 본론: 예정론의 스펙트럼

1. 테오도르 베자의 예정론: 신론중심적인 절대주권

제네바의 대표적 개혁파 스콜라인 베자는 이중예정론자이며, 최초의 전택론자로 평가된다. 그의 예정론은 개혁파 신학자들의 예정론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예정론의 전형을 보여준다.[7] 흥미로운 것은 그의 예정론과 그의 선배이자 동역자였던 칼빈의 예정론이 일치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이러한 논쟁은 역사적으로는 그가 작성한 *Tabula Praedestinationis*에 대해서 칼빈이 취한 불분명한 자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8] 그렇다면 그의 예정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베자의 예정론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예정의 교리와 참된 사용에 대한 최고의 연구'(*De Praedestinationis Doctrina et vero Usu Tractatio absolutissima*)에 잘 설명되어 있다.

베자는 이 작품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먼저 예정론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섭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섭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권세를 말한다. 이 권세로서 그 분은 모든, 그리고 개개의 피조물들을 언제, 어떻게, 어떤 결말로 창조할 것이며, 어떠한 근거로 피조물들을 통치하실 것인지를 영원부터 스스로 정하셨다.[9]

---

7) J.S. Bray, *Theodore Beza's doctrine of predestination*, Nieuwkoop 1975, 47. 베자의 Tabula praedestinationis 는 체계화된 전택론의 전형이다.

8) 릿츨에 따르면 베자의 작품을 칼빈이 인정하였는지 거부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칼빈은 그의 작품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였다. O. Ritschl, *Dogmengeschichte des Protestantismus B.3: Die reformierte Theologie des 16. Und des 17. Jahrhunderts in ihrer Entstehung und Entwicklung*, Vandenhoeck & Reprecht, 1926, 294; Sliedregt는 의도에 있어서는 베자가 칼빈의 예정론 위에 서려고 하였다고 말한다. C. van Sliedregt, *Calvijns opvolger Theodorus Beza.*, 315: "Wel moet hierbij worden opgemerkt dat er ook bij Calvijn geen sprake van een radicale breuk met alle scholastiek was en deze heeft aan Beza's adres dan ook nooit een krachtig neen laten horen. Beza meende zijn voorganger ermee te dienen. Zodoende is wellicht terecht gezegd: Wat Melanchthon betekent voor Luter, vervult Theodorus Beza bij Calvijn."

그 다음에는 예지를 다룬다. 예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아시는 것이다. 베자의 예정론에서 예지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는 예지가 하나님의 작정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이유는 창세 전에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10] 예정은 무엇인가? 예정은 특별한 목적, 구원 또는 멸망으로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작정이다. 예정에는 이중적인 마지막 결론과 이 결론에 종속된 수단들이 포함된다.[11]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분의 영광을 보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최고의 긍휼로, 그리고 가장 엄격한 의로 보이기로 하셨다. 즉 어떤 자들을 은혜로 택하고 사랑하고 영생을 주시며, 다른 자들을 의롭게 버리고 미워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12] 베자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정하심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말한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사랑으로부터 행하신 영원한 작정인데, 그 분이 사랑하신 특정한 사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에게 영생으로 그 분의 최고의 선과 긍휼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13] 유기는 남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데, 그들 안에 가장 의롭고 엄격한 정죄로서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증오를 그 분에 대한 최고의 찬양과 함께 보이신다.[14]

그리고 베자는 선택의 작정과 유기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원인들에는 택자들과 유기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 공통적인 것은 창조,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것과 타락이다.[15] 그 후에 택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유효한 소명, 믿음과 그로 인한 열매들, 그리고 영화이다. 이 일들의 원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유기자에게 고유한 것은 의로운 버리심, 완고함과 그로 인한 결과들, 그리고 의로운 정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다.[16]

이러한 베자의 예정론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강조이다. 베자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작정과 그 분의 작정의 실행에 있어서 최고의 원인이며, 이 원인은 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순서에서도 다른 모든 원인들을 앞서는 것이다.[17] 이러한 의지의 우선성은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이해에서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예지는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며, 질서와 순서에 있어서 의지는 예지를 앞서간다.[18] 베자에게는 중세 신학자들에게서 나타는 하나님의 '이중 지식'의 구별이 나타나지 않는다.[19] 그에게 하나님의 예지란 그 분의 의지로 인해서 결정된 미리 아심 외에는 없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그가 전면에 세우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강조로 인한 논리적인 결과로 보인다.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

9)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2.
10)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3.
11)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inae.*, 5: "..., praedestinatio vero nihil aliud sit quam eius voluntatis ad certum finem sive salutis sive exitii destinatio,..., Praedestinationem & ad ultimum illum duplicem finem & ad utrinque subordinata media pertinere."
12)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5-6.
13)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6: "... esse aeternum Dei decretum ex mere gratuito ipsius amore profectum, de certis quos ipsi libuit, hominibus eligendis, in quorum aeterna salute, summam suam bonitatem ac misericordiam declararet:"
14)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6: "..., aeternum Dei decretum de reliquis hominibus, in quorum iustissima simul & severissima condemnatione, summum illud suum adversus omne peccatum odium summa cum sua laude declararet,"
15)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7.
16)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7.
17)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60: "Divini propositi summam causam esse meram ipsius Dei voluntatem."; 62: "non tempore tantum, de quo nullus ambigere potest, sed etiam ordine antegrediatur."
18)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3.
19) 리처드 멀러,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김용훈 역,(부흥과개혁사, 2014), 660: "옛 스콜라주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오성 자체에 의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아시는 모든 것에 있는 지식과 사물들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하심에 의거하는 지식 사이를 구별했다." 전자는 본성적 지식(scientia naturalis et simplicis intelligentiae)이라고 하며, 후자는 자유로운 지식(scientia libera et visionis)라고 부른다.

한 강조는 아리스토텔레스-토마스적인 목적론적인 사고로 더욱 강화된다. "예정은 최종적인 목적과 이 목적에 종속되는 수단들로 이루어져 있다."[20] 베자에 의하면 최종적인 목적이 결정되고 나면, 이 목적을 위한 수단들이 결정된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여기에서 하나님은 피조물, 즉 사람의 결말을 정하신다. 그 후에 사람의 창조와 타락을 결정하신다. 이러한 목적론적인 사고는 롬 9:21의 해석에서 나타난다. 지혜로운 공인은 자신의 작업에서 목적을 가장 먼저 앞세운다. 그러므로 사람의 작정은 사람의 창조와 또 다른 목적들을 앞선다. 여기에서 베자는 21절의 '진흙 한 덩이'를 아직 타락하지 않은 인류로 해석한다. 만약에 이 진흙 한 덩이가 타락한 인류라면 성경 기자는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고, 천히 쓸 그릇을 새롭게 하며 다른 그릇을 천함에 내버려 둔다고 말했을 것이다.[21] 그는 롬 9장의 해석을 통하여 목적론적인 사고와 함께 전택론을 보여준다.

이러한 베자의 이해는 그의 예정론이 신론중심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의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하나님은 작정에서 다른 피조물을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심지어 죄 조차도 그 분의 예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지도 그 분의 예정에서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동시대에 활동하던 다른 개혁 신학자들과 달리 베자의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만이 언급된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베자의 예정론은 전형적인 전택론(Supralapsarismus)의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선택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베자의 예정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정을 실행하시는 - 중요하기는

20)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5.

21)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108-109: „si massae nomine omne in genere humanum genus, ut corruptum intelligeretur, certe non diceretur figulus alia vasa ad decus, alia vero ad dedecus facere, sed ex vasis iam dedecoris plenis quaedam ad decus renovare, quaedam in suo dedecore relinquere."

하지만 - 하나의 수단으로만 이해한다. 이것은 그의 신론중심적 예정론의 결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지와 그 분의 영광 외에는 모든 것이 수단으로 이해된다. 베자는 정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의 원인이라고 한다.[22] 그는 엡 1:5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자를 통하여 그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분의 시간에 긍휼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작정하셨다."[23] 여기서 베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을 구원하고자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예정의 영역보다는 예정의 실행의 영역에 포함된다.[24] 베자의 전체 신학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그의 전체 신학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가 평가절하되지 않는다.[25] 그러나 예정론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

22)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rinae.*, 7: "Peculiares autem eligendis, ac proinde servandis adultis quod ad Deum ipsum attinet, Vocatio efficax per verbum: in ipsis autem eligendis adultis per Dei gratiam, Fides & eius effecta, ude tandem Glorificatio consequitur: quorum omnium fons est IESUS CHRISTUS mediator ex gratuita Dei misericordia."

23) T. Beza, *De Praedestinationis Doctinae.*,12: "..., quomodo per illum unicum servatorem Deus, quos in ipso ab aeterno servandos(Eph.1.5.& 2.Tim.1.9.), eligere & servare suo tempore per misericordiam decreverat,..."

24) D. Sinnema, *Calvin and Beza: The Role of the Decree-Execution Distinction in Their Theologies*, 191-207, in *Calvinus Evangelii Propugnator: Calvin, Champion of the Gospel*, Seoul, 1998. 진네마(D.Sinnema)는 베자의 예정론을 '작정-실행'이라는 틀로 봐야하며, 작정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며,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실행에 속해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서 멀러는 베자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electio in Christo)이라는 칼빈의 이해가 동일하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서 칼빈과 베자의 예정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멀러는 베자에게서도 그리스도는 선택의 원인이라고 한다. Muller, R.A., *Christ and the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the Labyrinth Press, 1986, 82;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대로 베자에게서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선택의 실행'이라는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25) 그의 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R.A. Muller, *Christ and the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Labyrinth Press, 1986; C. van Sliedregt, *Calvijns opvolger Theodorus Beza: Zijn verkiezingsleer en zijn belijdenis van dedrieenige God*, Brill, 1966를 참조하라.

도는 전적으로 선택을 실행하는 수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자의 예정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26] 이로서 신론중심적인 전택론이 그의 예정론의 특징이 된다. 이와 같은 베자의 '신론중심적인 전택론'은 그의 후에 오는 전택론을 따르는 개혁파 신학자들의 예정론에 영향을 끼치는데, 후에 오는 람버트 다네우스(Lambert Daneaus, 1530-1595), 프란치스쿠스 고마루스, 요한네스 마코비우스, 윌리엄 트위스(William Twisse, 1578-1646) 등과 같은 전택론자들에게서 베자와 같은 이해가 나타난다.

2. 칼빈의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electio in Christo*)

칼빈의 신학에서 예정론이 중요한 교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27] 칼빈의 예정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베자와 같이 하나님의 의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칼빈은 종종 베자와 같은 전택론자로 평가되기도 한다.[28]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하여 칼빈의 예정론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29]

26) G. Adam, *Der Streit um die Prädestination im ausgehenden 16.Jahrhundert: Eine Untersuchung zu den Entwürfen von Samuel Huber und Aegidius Hunnius*, Neukirchener Verlag, 1970, 45: "Es zeigt sich in Bezas Ausführungen ein theologischer Absolutismus, demzufolge das Heil in Gottes Willen begründet wird – allein und ausschlieβlich. Erwählung und Verwerfung haben ihren Grund nirgendwo anders – auch nicht im Werke Christi."

27) 차영배, 『깔뱅신학입문』, 344: "우리는 보하텍크(J.Bohatec)과 함께 예정론은 깔뱅에게 중요한 교리이지만, 결코 교의학적 출발원리라는 의미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W.H.Neuser는 칼빈의 예정론이 그의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고 말한다. 그의 초기에는 (기독교강요초판 등)에는 이중 예정론이 나타나지 않으나, 1552년 제네바 신조등을 거치면서 강요 최종판에는 이중 예정론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W.H. Neuser, "Prädestination," in *Cavin Handbuch*, H.J.Selderhuis 편집, Mohr Siebeck, 2008, 307-317.

28) 칼빈이 전택론자라고 주장한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A. Adam, G. Bavaud, F. Blanke, K. Dijk, E.A. Dowet, C. Friethoff, W. Hauck, W. Kickel, J. Kreyher, A. Lecerf, R. Seeberg, E. Wolf 등이다. H. Rimbach, *Gnade und Erkenntnis in Calvins Prädestinationslehre*, Peter Lang, 1991, 418; 물론 이들 못지 않게 칼빈을 후택론자로 보는 학자들도 많다.

29) 양신혜, '칼빈의 예정론 이해,' 『한국개혁신학』 2016/49, 107.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강요가 예정론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천명한다.

기독교강요 초판(1536년)에서 예정론은 교회론에서 언급된다. 칼빈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택자들의 보편적인 수'라고 정의한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택자들이라고 언급함으로 선택을 언급한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으로 연결된다. 칼빈은 구원의 서정을 '하나님의 긍휼의 순서'라고 칭한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의 서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신 그들을 불러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30] 여기서 칼빈의 선택은 교회론과 함께 구원론과 연결된다. 이 선택받은 교회의 구성원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기독교강요 초판에 이중 예정론이 나타나는가? 칼빈은 이 작품에서 유기를 정의하거나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과 함께 유기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있다. 이중 예정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유기에 대한 맹아는 나타난다.[31]

이와 함께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서 칼빈은 선택 안에 자리잡고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성도는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그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 생명,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다.[32]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된다.[33]

30) J. Calvin, Inst.(1536), 1,4: "Atque hic quidem ordo misericoridae Dei nobis a Paulo describitur, ut, quos ex hominibus elegit, eos vocet: quos vocavit, iustificet: quos iustificavit, glorificet."

31) J. Calvin, Inst.(1536), 1,4: "...: ut nobis constet, qui aeterno eius consilio electi, qui raprobati sint."; "ac electos a reprobis discernere..."

32) J. Calvin, Inst.(1536), 1,4.

33) J. Calvin, Inst.(1536), 1,4.

칼빈은 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의 것으로 삼으시며, 그 분의 교회 안에 무리로 두시려고 의도하신 자를 선택하셨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들 안에 있는 자들이며, 교회 안에 속해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34] 두 번째, "그리스도 자신이 견고하며 불변하시는 아버지의 진리이시다. 그 분의 설교가 처음부터 있었고 항상 있게 될 아버지의 의지를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된다."[35]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으로 인하여 예정론은 성도에게 의미를 갖는다. 성도는 지금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신 이유는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이시다.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분의 뜻을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성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구원론적이고 인식론적이다.

기독교강요 1539년판부터는 예정론을 교회론과 분리하여 다룬다. 칼빈은 예정론에 대한 첫 언급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다양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의 결정을 따른다는 의심할 바가 없다. 구원이 어떤 자에게는 제공되고, 또 다른 자에게는 그 입구가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기서 즉시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떠오른다. 이것

34) J. Calvin, Inst.(1536), 1,4: "Cum enim Christus Dominus noster, is sit, in quo pater ab aeterno elegit, quos voluit esse suos, ac in ecclesiae suae gregem referri: satis clarum testimonium habemus, nos & inter Dei electos, et ex ecclesia esse, si Christo communicamus."

35) J. Calvin, Inst.(1536), 1,4: "cum sit ipse idem Christus, constans & immutabilis patris veritas: minime haesitandum est, quin eius sermo vere nobis enarret patris voluntatem, qualis ab initio fuit, & semper futura est."

은 만약 경건한 마음들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거기에 일치하는 것과 다르게 설명할 수 없다."[36] 칼빈은 왜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는 않는지를 질문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선택과 예정에 따라서 사람을 구원하고 버리신다. 또한 칼빈은 모든 선택과 예정을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에 돌린다. 하나님은 작정에 있어서 그 분의 의지의 정하심에 따라서 하시며, 그 분 밖에 있는 어떠한 것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37] 이로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는 이중 예정론이다.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되었다. 다른 하나는 만물에 대한 비밀스러운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정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의 작정은 신론중심적이다. 하나님의 의지 외에는 피조물의 어떠한 것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고는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의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은 처음에 구원으로 받아들이기로 원하시고, 반대로 어떤 자들을 멸망에 넘겨주는 것을 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한다..."[38] 여기서 칼빈은 선택과 유기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의 의지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하게 이중 예정론이 나타난다.[39]

36) J. Calvin, Inst.(1539), 8,1: "Nec enim dubium, quin aeternae Dei voluntatis arbitrio haec quoque varietas serviat. Quod si palam est Dei nutu fieri, ut aliis ultro offeratur salus, alii ab eius aditu arceantur, hic magnae et arduae protinus emergunt quaestiones, quae alter explicari nequeunt, quam si de electione ac praedestinatione constitutum habeant piae mentes, quod tenere convenit."

37) J. Calvin, Inst.(1539), 8,7.

38) J. Calvin, Inst.,III,21,7: "Quod ergo scriptura clare ostendit..., aeterno et immutabili consilio Deum semel constituisse, quos olim semel assumere vellet salutem, quos rursum exitio devovere."

39) J. Calvin, Inst.,III,21,5: "Predestinationem vocamus aeternum Dei decretum, quo apud se constitutum habuit, quid de unoquoque homine fieri vellet. Non enim pari conditione creantur omnes; sed aliis vita aeterna, aliis damnatio aeterna praeordinatur."; *Calvin Handbuch*, H.J.Selderhuis 편집, 중에서 W.H.Neuser, *Prädestination*, 316.

그렇다면 칼빈의 예정론에서 예정과 예지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칼빈이 예정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가 아니라 의지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칼빈은 사람들이 감히 쉽게 예정을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예지를 예정의 원인으로 만든다고 지적한다. 물론 예지와 예정 모두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예지는 모든 것이 그 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분의 아심에는 과거나 미래가 없고 모두가 현재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예지를 그 분의 뜻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한다.[40] 베자와 같이 칼빈의 예정론에서도 예지는 의미가 없다.[41]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강조는 롬 9장의 본문의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를 통하여 설명된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그들을 택하고 버리셨다. 이것은 신적인 예정의 기초가 어떤 행위에 있지 않은 것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들의 어떠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들을 강퍅하게 하신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원인도 찾아서는 안된다.[42] 이러한 칼빈의 예정론 이해는 그의 예정론의 첫 번째 되는 원리가 신론중심적인 이해라는 것을 보여준다.[43] 이 칼빈의 신론중심적인 예정론은 실천적인

40) J. Calvin, Inst.,III,21,5: "Ac nos quidem utramque in Deo statuimus; sed praepostere dicimus alteram alteri subiici."

41) 이러한 칼빈의 예지에 대한 이해는 그의 후배인 베자와 동일하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와 예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칼빈 역시 중세 스콜라 신학의 이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42) J. Calvin, Inst.,III,22,11: "Quum enim dicitur Deus vel indurare, vel misericordia prosequi quem voluerit, eo admonentur homines nihil causae quaerere extra eius voluntatem."

43) 칼빈이 주의주의자인가 하는 것이 이와 함께 또 다른 논쟁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A.E.McGrath는 칼빈을 전형적인 스코투스적인 주의주의자로 이해한다. A.E. McGrath, *Intellectual Origins of the European Reformation*, Blackwell, 1987, 100; 그러나 이에 반하여 W.den Boer는 그에게 주의주의적인 면이 있을지라도 급진적인 주의주의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W. den Boer, *God's Twofold Love: The Theology of Jacob Arminius(1559-1609)*, A. Gootjes 번역, Vandenhoeck & Ruprecht, 2010, 292.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분의 의지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nostris meritis)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사람의 공로에 반하는 것이다.[44] 그의 신론중심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와 함께, 그 분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경외가 맞물려 있다.[45]

이러한 칼빈의 예정론의 신론중심적인 이해의 다른 편에는 그리스도적인 이해가 있다. 칼빈의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electio in Christo)이 함께 나타난다.[46] 앞에서 살펴 본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기독교강요 초판의 엡 1:4의 해석에서부터 나타난 것인데, 초판에서는 주로 구원-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1539년 판에서부터 이 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1539년판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실 때, '선택된 사람들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근거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한다.[47] 그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 안에 가치로 여길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다.[48]

두 번째, 하나님은 아담의 보편적인 씨에서는 선택을 위한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눈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리심으로 선택을 위한

44) J. Calvin, Inst.(1539),8,6: "Ubi Dei beneplacitum quibuslibet nostris meritis opponit."

45) J. Calvin, Inst.,III,23,4: "Occurremus enim cum Paulo in hunc modum, O homo? tu quis es qui disceptes cum Deo?"

46) R.A. Muller, *Christ and the decree.*, 37.

47) J. Calvin, Inst.(1539),8,6: "Paulus quum decet(Eph.1,4) nos in Christo electos fuisse ante mundi creationem, omnem certe dignitatis nostrae respectum tollit."; Inst.,III,22,1; Inst., III,24,5.

48) J. Calvin, Inst.,III,22,1.

가치를 발견하신다고 가르친다.[49] 하나님은 택자들을 그 자체로 사랑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택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시다.[50]

세 번째, 이러므로 성도는 선택의 확신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에게서 선택의 확신을 찾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 없는 성부에게서도 찾을 수 없다.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봐야 하며, 그러므로 그 분은 선택의 거울이다.[51]

기독교강요 초판보다 확대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구원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만 살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으로 소급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의 예정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에서부터 성도의 선택의 확신에까지 포괄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발견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실 수 없다고 하여서, 그리스도를 선택의 원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가지고 사람에게 공로를 찾는 것을 반대한다.[5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신 것은 사람에게 선택할 만한 가치와 공로를 찾으실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의 논리적 순서를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in Christo)과 연결되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긍휼의 서정과 교회론까지 나아간다. 이것은 기독교강요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이다.[53] 칼빈의

49) J. Calvin, Inst.,III,22,1: "Perinde enim est ac si diceret, quoniam in universo Adae semine nihil electione sua dignum reperiebat coelestis pater, in Christum suum oculos convertisse,..."

50) J. Calvin, Inst.,III,24,5: "Proinde quos Deus sibi filios assumpsit, non ipsis eos dicitur elegisse, sed in Christo suo; quia non nisi in eo amare illos poterat(Eph.1,4),..."

51) J. Calvin, Inst.,III,24,5: "Quod si in eo sumus electi, non in nobis ipsis reperiemus electionis nostrae certitudinem; ac ne in Deo quidem patre, si nudum illum absque filio imaginamur. Christus ergo speculum est in quo electionem nostram contemplari convenit, et sine fraude licet."

52) 각주 34번 참조.

예정론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예정론을 떠 받치는 또 하나의 중심 내용이다.

여기서 칼빈의 예정론은 두 가지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의지의 기뻐하심을 강조하는 신론적인 이해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에 대한 그리스도론적인 이해이다. 이로 인해서 칼빈의 예정론에는 신론-그리스도론적인 균형이 나타난다.

3. 하인리히 불링거의 예정론: 그리스도중심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지

앞에서 언급한 바 대로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의 동역자이자, 취리히의 개혁자인 하인리히 불링거는 제네바 신학자들의 예정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불링거는 어떠한 예정론 이해를 가졌기에 제네바 신학자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는가? 그의 예정론을 살펴 보기 위해서 불링거의 두 작품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하나는 그가 섭리론과 예정론에 대해서 한 설교이다. 섭리론과 예정론은 『디케이드』(Decade) 4권 4번째 설교에서 다루고 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작성한 『제2 헬베틱 신조』(1566)이다. 이 신조는 그의 신학적 내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54]

불링거는 그의 설교에서 예지와 예정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는 먼저 예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인

53) 스페이커는 칼빈의 교회론적인 예정론이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뿐만 아니라 최종판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W. van Spijker, *Calvin: Biographie und Theologie*, H. Stoevesandt 독역, Vandenhoeck & Ruprecht, 2001, 215: "Da β Calvin in der letzten Ausgabe der Institutio die Erwählungslehre als Abschlu β der Lehre vom Heil an deren Ende stellte, bedeutet nicht, da β ihre Verbindung mit der Ekklesiologie gelöst wäre."

54) 필립 샤프, 『교회사 전집 8권: 스위스 종교개혁』, 박경수 역,(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207: "가장 중요한 교리적 작품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인데, 이것은 스위스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문으로 상징적 권위를 획득하였다."

데, 이 지식에 의해서 그 분은 모든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아시며, 심지어 존재하는 모든 현재의 일과 있었던 일과 될 일을 보신다."[55] 그 분의 지식에는 모든 것이 현재이시다. 불링거는 그 후에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는 예정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데, 이 작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가장 확실한 결말로 정하심으로서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셨다."[56]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통하여 사람을 생명과 죽음이라는 결말로 결정해 놓으셨다는 불링거의 정의는 이중 예정론의 형태를 가진다.[57] 또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의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58]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의논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불링거의 예정론에 대한 정의는 제네바 신학자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정론은 제네바 신학자들과는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그의 예정론에서 신론적인 측면은 약화되고 그리스도적 이해가 전면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정, 또는 미리 정하심의 목적은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몇 명이든지 간에 그 분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교류를 갖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로 그의 독생자와의 교통과 교류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간에 멸망하거나 정죄하기로 작정하셨다."[59] 불링거는 그의 예

55) H.Bullinger, Dekade 4,4, 185: "They call foreknowledge that knowledge in God, whereby he knoweth all things before they come to pass, and seeth even present all things that are, have been, and shall be."

56) H.Bullinger, Dekade 4,4, 185: "And the predestination of God is the eternal decree of God, whereby he hath ordained either to save or destroy men ; a most certain end of life and death being appointed unto them."

57) 불링거의 권위자인 캄피(Edmund Campi) 교수는 불링거의 예정론이 '이중 예정론이지만 운명론은 아닌' 것으로 정리한다. Das Magazin der Reformierten Presse 20 / 2004, 5.

58) H.Bullinger, Dekade 4,4, 186.

59) H.Bullinger, Dekade 4,4, 186: "The end of predestination, or fore-appointment, is Christ, the Son of God the Father. For God hath ordained and decreed to save all, how many soever have communion and fellowship with Christ, his only-begotten Son; and to destroy or condemn all, how many soever have no part in the communion or fellowship of Christ, his only Son."

정론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적게 언급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60] 이러한 그리스도중심적인 사고는 그의 『제2 헬베틱 신조』에서 나타난다.

그는 신조 10항에서 선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정에 대한 정의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은혜에 따라서 성도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들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61] 이 설명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짧은 설명 후 불링거는 바로 그리스도중심적인 선택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없이 선택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속한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이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바 된 자들은 택자이다."[62] 여기서 불링거는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um Christi Willen)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불링거는 "예정론, 혹은 미리 정하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한다.[63] 예정은

60) R.A. Muller, *Christ and the Decree.*, 44: "The interrelationship of predestination and Christology in Bullinger's *Confessio* develops out of a more pronounced christocentrism..."

61) H.Bullinger, Das Zweite Helvetische Bekenntnis(1566), K.10: "Gott hat von Ewigkeit her ohne jedes Ansehen der Menschen frei und aus lauter Gnade die Heiligen, die er in Christus selig machen will, vorherbestimmt oder erwählt..."

62) H.Bullinger, Z.H.B. K.10: "Also hat uns Gott nicht ohne Mittel - allerdings nicht wegen irgendeines Verdienstes unsererseits sondern in Christus und um Christi willen erwählt, so dass diejenigen auch die Erwählten sind, die bereits durch den Glauben in Christus eingepflanzt wurden."

63) E. Campi, "Heinlich Bullinger und seine Zeit," in *Zwingliana* 31 / 2004, 31: "Finis praedestinationis vel praefinitionis Christus est dei patris filius. Decrevit enim deus servare omnes quouquot communionem habent cum Christo unigenitu filio suo, perdere autem omnes quotquot a Christi filii sui unici communione alieni sunt. Communionem vero cum Christo habent fideles, alieni a Christo sunt infideles."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며, 예정의 목적은 그리스도이다. 불링거는 엡1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in), 그리스도에 의해서(by), 그 분을 통하여(through)을 하셨다고 말한다.[64]

그러므로 선택을 확신하는 방법 역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선택받은 것이다.[65] 불링거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그 분의 영원한 작정이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택함받은 자의 가장 큰 표이며,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부름을 받고 믿음을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분의 선하신 뜻과 선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66] 불링거는 성도가 그 분의 사랑과 선택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어떠한 가치에 달려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긍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67]

이러한 이해는 『제2 헬베틱 신조』에서도 나타난다. 선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말해서는 안된다.[68] 불링거는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작정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고 한다.[69]

64) H. Bullinger, Dekade 4,4, 186.
65) H. Bullinger, Dekade 4,4, 186.
66) H. Bullinger, Dekade 4,4, 187.
67) H. Bullinger, Dekade 4,4, 187-188: "God's predestination is not stayed or stirred with any worthiness or unworthiness of ours; but of the mere grace and mercy of God the Father, it respecteth Christ alone."
68) H.Bullinger, Z.H.B. K.10: "Denn der Vater hat uns seinen ewigen Ratschluss der Vorherbestimmung in Christus offenbart, wie ich bereits mit dem Apostelwort 2.Tim. 1,9f erläutert habe. Man muss also vor allen Dingen lehren und beherzigen, welch groβe Liebe des Vaters gegen uns in Christus uns offenbart worden sei;"
69) H.Bullinger, Z.H.B. K.10: "Daher sei Christus der Spiegel, in dem wir unsere Vorherbestimmung betrachten."

이러한 내용들은 그의 예정론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링거의 예정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찍혀있다.

이 그리스도중심적인 이해는 선택뿐만 아니라 유기와도 관련이 있다. 불링거는 설교에서 유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짧게 말한다. "죽음으로 예정된 자들을 다루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정죄받은 것인데, 그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 정죄이다.'"[70] 불링거는 유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유기의 원인을 다루지 않으며, 믿지않는 자는 정죄받는다는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2 헬베틱 신조』와도 유사하다. "유기자는 사도의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에 따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다."[71] 신조도 유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불링거는 유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다.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올라가지만, 유기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확실하지 않다.[72] 불링거는 단순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유기자라고 정의한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작정에서 유기

70) H. Bullinger, Dekade 4,4, 187: "Again, on the contrary part, touching those that are predestinate to death, the Lord saith: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th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begotten Son of God.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light i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have loved darkness more than light."
71) H.Bullinger, Z.H.B. K.10: "Verworfen aber sind diejenigen, die auβer Christus sind nach dem Apostelwort: Stellet euch selbst auf die Probe, ob ihr im Glauben seid; prüfet euch selbst! Oder erkennt ihr euch selbst nicht, dass Jesus Christus in euch ist? Ihr müsstet denn unbewährt(verworfen) sein"(2.Kor. 13,5).
72) C.P. Venema, *Heinrich Bullinger and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52: "While Bullinger mentions only God's decision to provide a physician for the sins of the lost world in the *Summa* – There being no explicit reference to a corollary purpose not to save, or decree of reprobation – this is consistent with his exposition of his definition in the *Decades*."

를 인정하면서도, 유기자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왔다는 인과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거절한다.[73]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불링거는 명제적으로는 이중 예정론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그의 예정론의 내용은 이중 예정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74] 그는 유기를 하나님의 의지에서부터 끌어내지 않는다. 동시에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불링거는 '죽음으로의 예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예정론 안에서 선택론, 특별히 선택의 원인과 내용과 목적, 그리고 선택의 거울인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신론적인 언급은 비교적 많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는 유기에서 하나님의 뜻 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서 캄피는 불링거의 예정론이 쯔빙글리나 칼빈과는 어느 정도 구별되는 길로 간다고 평가한다.[75] 이것은 정당한 평가로 보인다. 그는 칼빈과 같이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두 축

73) C.P. Venema, *Heinrich Bullinger and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53; P. Walser, *Die Prädestination bei Heinlich Bullinger im Zusammenhang mit seiner Gotteslehre*, Zürich, 1957, 173.

74) W. den Boer, *God's Twofold Love.*, 305: „Bullinger and Calvin agree completely on the *sola gratia* of salvation. According to Bullinger, however, at the point where he himself begins to speak asymetrically about election and repobation, Cavin errs.... It was not only in Zürich that people were troubled with Calvin's statements, for also in Bern some, just as Pighius and Bolsec, accused Calvin of making God the author of sin."

75) E. Campi, "Heinlich Bullinger und seine Zeit," in *Zwingliana* 31 / 2004, 31: "Zudem geht Bullinger in seinen Ausführungen zur Vorherbestimmung problembewusst andere Wege als Zwingli und als Calvin, indem er im Rahmen des Schriftzeugnisses bleibend – und damit auch argumentierend – auf eine rationale Vermittlung von Gottes souveränem Heilshandeln und seinem universal gültigen Heilsangebot verzichtet."; 『종교개혁과 신학자들』, 카터 린드버그 편집, 조영천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중에서 브루스 고든, *하인리히 불링거*, 321. 린드버그는 불링거가 목회적 차원에서 예정론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시는 분으로 강조된다.

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무게는 그리스도로 기울어져 있으며, 내용 상에 있어서 이중 예정론이라기 보다는 선택론에 가깝다.

4. 필립 멜랑히톤의 예정론: 교회를 위한 복음인 예정론

제네바 신학자들과 다른 예정론을 주장한 또 한 명의 신학자는 비텐베억(Wittenberg)의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hthon)이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 루터의 후계자로서 그의 사후에 독일 종교 개혁을 이끈 독일 개신교회의 지도자였다. 다른 한편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들인 칼빈과 불링거보다는 연상이었던 신학자였지만,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유럽의 종교 개혁을 끌고 나갔다. 독일의 개신교 지도자였던 그의 예정론은 어떠했는가?

멜랑히톤에게 예정론은 그의 생애에서 변화를 맞은 교리였다. 그의 초기 작품 『신학총론』(*Loci Communes rerum theologicarum, seu hypotyposes theologicae*, 1521)에는 충실하게 루터의 노예의지론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나,[76] 이러한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하였는데,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을 보면서 예정론이 스토아의 운명론적인 이해와 동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77] 이런 이유로 멜랑히톤은 예정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확한 의지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78] 1559년판 『신학총론』(*Loci Communes*

76) P. Melanchthon, *Loci communes rerum theologicarum, seu hypotyposes theologicae*, Basileae, 1521, De hominis viribus adeoque de libero arbitrio, Summa: "Si ad praedestinationem referas humanam voluntatem , nec in externis nec in internis operibus ulla est libertas, sed eveniunt omnia iuxta destinationem divinam. Si ad opera externa referas voluntatem, quaedam videtur esse iudicio naturae libertas. Si ad adfectus referas voluntatem, nulla plane libertas est, etiam naturae iudicio."

77) 필립 샤프, 『교회사 전집 7권: 독일 종교개혁』 , 박종숙 역,(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4), 346.

78) De Quinta Quaestione: "Nec opus est huc afferre disputationes de paedestinatione, sed

Theologici)에서는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진다. 이로 인해서 칼빈과 멜랑히톤은 예정론을 두고 서로 비판을 가할 정도로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79] 멜랑히톤은 당시 스위스 신학자들에게 있는 예정론과는 다른 이해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멜랑히톤의 후기 예정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1559년판 『신학총론』을 통하여 그의 예정론을 살펴 보고자 한다.

멜랑히톤은 『신학총론』 제 14장에서 예정을 다루고 있다. 그는 예정론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는 처음에 타락한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특별히 그 분이 보호하시며, 간청을 들으신 단체가 있는지를 질문한다.[80] 이에 대해서 멜랑히톤은 대답하기를,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견고하고 분명한 증거들로 우리를 둘러쌓으셨는데, 그 분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선한 것들로 장식하실 어떤 모임이 있다고 대답한다.[81]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비록 눈에는 사람의 육체들이 지금은 거의 죽음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기적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어떤 인류는 다른 결말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교회에 인류의 근원과 죽음의 원인과 인류의 재건이 계시되

iudicemus de voluntate Dei ex perspicuo verbo Dei."

79) 최윤배, 『깔뱅신학 입문』, 장로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351-352: "1543년 2월에 깔뱅은 그의 논쟁서 *Defensio doctrinae de servitute humani arbitrii contra A. Pighii*(1543)를 멜란히톤에게 보냈고, 멜란히톤은 깔뱅에게 그 해 5월 11일에 회신했다. 예정론에 대해서 침묵하는 문제에 대해서 깔뱅은 그의 작품 *Preface de somme de Melanchthon*(1546)에서 멜란히톤을 비판했다... 멜랑히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밑바닥까지 알아보려는 사람들의 지나친 호기심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서가 말하고 있는 예정론에 침묵함으로써 너무나도 인간의 이성에만 호소하여 멜란히톤은 신학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철학자라고 깔뱅은 그를 비판한다."

80)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item appendix disputationis de coniugio*, Erlangae, 1828, De Praedestinatione: "..., saepe quaerunt animi hominum, an aliqua pars generis humani peculiariter curae Deo sit, et quae sit illa pars; an Deus aliquos audiat,..."

81)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Adversus has quaestiones firmis et illustribus testimoniis Deus ipse nos munivit, ac primum esse aliquem coetum, quem diligat, curet et aeternis bonis ornaturus sit,..."

었다.[82] 멜랑히톤은 계속해서 인류의 나라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그 분의 증거로 나타나는데, 이를 위해서 선택과 예정이 유용한 가르침이 된다고 말한다.[83] 멜랑히톤의 예정론은 다른 개혁자들과는 달리 구원론을 배제한 순전한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출발한다.

멜랑히톤은 예정론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요10:27, 엡1:4, 딤후2:19)이 모두 택자들의 교회가 세상에 남아 있으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한다.[84] 그러면서 그는 예정을 위한 세 가지 전제(hypotheses)를 말한다:[85]

"첫 번째는 이것이다. 선택에 대해서는 이성이나,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것이다. 구원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선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이것이다. 우리가 칭의에 대한 원인과 선택에 대한 원인을 각각 다른 것으로 찾아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선택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

82)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83)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 tamen mansuram esse Dei ecclesiam, sciamus ex ipsis Dei testimoniis. Ut hanc consolationem teneamus, utile est aliquid de electione seu de praedestinatione praecipere."

84)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85)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Prima est: Nec ex ratione, nec ex lege iudicandum est de electione, sed ex Evangelio. Altera est: Totus numerus salvandorum propter Christum electus est: Quare nisi complectamur agnitionem Christi, non potest de electione dici. Tertia est: Non aliam iustificationis, aliam electionis causam quaeramus. ideo Petrus est electus, quia est membrum Christi: sicut ideo iustus est, id est, Deo placens, qui a fide factus est membrum Christi. Ut igitur cum de iustificatione loquimur, ab Evangelio seu agnitione vocis Evangelii ordimur: sic de electione dicturi, caeplectamur vocem Evangelii. Sic nobis iudicandum est, quià Christi agnitione et Evangelio ordiri debemus."

다.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음 또는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처럼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에는 복음이라는 말로 이해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부터,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각각의 전제는 그의 예정론의 특징을 보여준다. 멜랑히톤은 예정을 복음에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멜랑히톤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분의 의지가 드러난다. 이 약속 밖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찾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의지,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분의 의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그 분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다.[86] 이 복음의 선포와 내용은 보편적이며 불변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 외에 다른 하나님의 뜻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용납받는다.[87]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엡 1:4의 의미이다.[88] 마지막 전제에서 멜랑히톤은 칭의의 원인과 선택의 원인이 같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칭의의 원인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인 것처럼, 선택의 원인 역시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 명제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멜랑히톤은 예정과 복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정에는 복음 이상의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해서 멜랑히톤의 예정론의 중심점은 '복음'이다.

86)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Quaeramus ergo promissionem, in qua voluntatem suam expressit Deus: & sciamus non esse aliam voluntatem quaerendam de gratia extra verbum, sed mandatum Dei immutabile esse, ut audiamus filium.... ut Ioannis 3. dicitur: Sic Deus dilexit mundum, ut suum filium unigenitum dederit, ut omnis qui credit in eum, non pereat."

87)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 id est, recipi nos propter Filium Dei, non propter nostram dignitatem etc."

88)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Ad Eph. 1,4. dicitur: elegit nos in Christo, ut doceat nos causam electionis esse non nostram dignitatem, sed Christum,..."

그렇다면 멜랑히톤에게 유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그는 유기를 복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한다. 그렇기에 멜랑히톤에게 있어서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의지는 전적으로 유기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유기의 원인은 사람 안에 있는 죄이다.[89] 그런데 그 죄, 즉 유기에 이르게 하는 죄는 아담 안에서 부패한 인류의 보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멜랑히톤에게 유기의 원인이 되는 죄는 복음을 듣지 않거나 거절한 죄, 즉 불신이라고 말한다.[90] 그는 인류의 본질적 타락이나 죄를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소개한 복음을 거절한 것이 유기의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멜랑히톤은 이 예정론에 세 가지 위로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부름받은 모임 안에 있지 않는다면 택자가 아니다.[91] 즉 그는 보이는 교회가 곧 택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위로는 선택의 의논이 소명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92]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보이는 교회'에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유효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다.[93]

이 위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멜랑히톤에게는 보이는 교회와 택자들의 모임이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참된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고, 그가 주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택자들이다. 유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벌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로 인한 멜랑히톤의 선택과 유기는 복음,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불신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를

89)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In his certum est causam esse reprobationis peccatum ipsorum, & humanum voluntatem."

90)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Causam igitur reprobationis certum est hanc esse, videlicet peccatum in hominibus, qui prorsus non audiunt nec accipiunt Evangelium, aut qui abiiciunt fidem, antequam hinc discedunt."

91)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prima consolatio est, quod affirmat, nusquam esse electos nisi in coetu vocatorum."

92)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Secunda consolatio est,... non removendam esse vocationem a consilio electionis."

93) P. Melanchthon, *Loci Communes Theologici*, De Praedestinatione: "Tertia consolatio est, quod testatur huic vocato visibili coetui vere adesse Deum, et in hoc coetu vocato ac visibili efficacem esse:"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는 작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선택은 공동체와 관련되지만, 그러나 이 선택과 유기가 정확한 대칭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기는 전적으로 사람의 거절, 불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기의 원인은 사람의 불신이지만,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로 인해서 멜랑히톤의 예정론에는 복음에 대한 믿음과 불신이 중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대에 나타나는 루터파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선택의 조건이 되는 조건적인 예정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94]

멜랑히톤의 예정론에게 있어서 중심점은 '복음'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주신 은혜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에 반하는 것은 결국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며 유기되는 것이다. 선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유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멜랑히톤에게는 그 이상의 예정의 내용은 없다. 그의 예정론에서 신론적인 이해는 거의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 이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그는 제네바 신학자들이나, 혹은 불링거 이해와는 차이가 있다. 동시에 이 선택과 유기는 '보이는 교회'와 '세상'으로 대응된다. 이런 면에서 그의 예정론은 철저하게 '보이는 교회'를 바탕으로 하며, 교회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결국 예정은 '성도의 개인적인 구원과 영화'와는 관련이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멜랑히톤의 복음에 대한 선포가 보편적임을 말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보편구원론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택론은 결국 교회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선택의 대상은 교회이며, 그로 말미암아 선택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94) A. Gottfried, *Der Streit um die Prädestination im ausgehenden 16. Jahrhundert, Eine Untersuchung zu den Entwürfen von Samuel Huber und Aegidius Hunnius*, Neukirchener-Verlag, 1970.을 참조하라;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2권』, 박태현 역,(부흥과 개혁사, 2013), 443: "안드레아이는 물론 여전히 선택의 원인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가르쳤지만,... 이차적 원인들인 신앙과 불신앙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다."

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멜랑히톤에게 예정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서 스위스의 신학자들이 예정론을 통하여 강조하려고 하였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 구원'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사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이 제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선택의 원인은 사람의 공로가 되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이다.

5. 개혁교회 밖의 예정론: 아르미니우스의 믿음에 근거한 선택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하면서 다수의 개혁파 신학자들과 예정론 논쟁을 벌였으나, 그의 예정론은 고마루스와의 논쟁을 거치면서 도르트레히트 국제총회에서 판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정죄되었다. 최근 들어서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아르미니우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덴 보어(W. den Boer)는 최근 논문에서 아르미니우스를 개혁파 신학자의 한 스펙트럼으로 넣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95]

이 논문에서는 아르미니우스의 예정론을 통하여 개혁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경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살펴 볼 그의 작품은 두 권이다. 한 권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학적 논제』(*Theses Theologicae de Praedestinatione Dei Samuel Gruterus: sub praesidio Franc. Gomari*, Joann. Patii., 1604)이고, 다른 한 권은 그의 사후에 출판된 『예정에 대한 고마루스의 주제들 연구』(*Examen Thesium D. Francisci Gomari de Praedestinatione: Accesserunt Stephani Curcellaei vindiciae, quibus suam & D. Arminii sententiam de iure Dei in creaturas, adversus Mosis Amyraldi criminationes defendit*, 1645)이다.

95) W. den Boer, *God's Twofold Love: The Theology of Jacob Arminius(1559-1609)*, A. Gootjes 번역, Vandenhoeck & Ruprecht, 2010.

그는 예정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작정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분이 믿음을 선물하고자 작정하신 믿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분의 자녀로 받으시며,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선물하셔서 그 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신다."[96]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불신자들을 정죄하기로 작정하셨다."[97] 이 정의에 따르면 아르미니우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은 다름아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불신자들을 정죄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선택론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선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 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아르미니우스는 선택과 복음을 동일시한다.[98] 아르미니우스에게 예정은 이미 계시된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다.

아르미니우스의 예정론, 즉 예정이 복음과 동일하다고 하는 이해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론이 있다. 아르미니우스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정론을 전개한다.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작정의 기초(*Decreti illius Fundamentum*)이다.[99]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며, 구원의 서정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아르미니우스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분의 사역에서 기초이자 토대로

96) J. Arminius, *Theses Theologicae.*, 2: "Predestinatio itaque,... est Decretum Beneplaciti Dei in Christo, quo apud se ab aeterno statuit fideles, quos fide donare decrevit, justificare, adoptare, & vita aeterna donare ad laudem gloriosae gratiae suae."

97) J. Arminius, *Examen Thesium.*, 30: "Tale est decretum quo Deus statuit fideles vita aeterna donare, & infideles condemnare."

98) J. Arminius, *Theses Theologicae.*, 3: "quia Evangelio continetur totius consilii Dei de salutis nostra extrema patefictio." 아르미니우스는 고마루스의 논쟁 속에서 예정을 복음 자체가 아닌, 복음의 질료(Evangelii materia)로 이해하는 고마루스를 비판한다. J.Arminius, *Examen Thesium.*, 4-5.

99) J. Arminius, *Theses Theologicae.*, 5.

이해한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아르미니우스의 예정론에서는 신론적인 근거가 생략된다. 왜냐하면 아르미니우스의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선포, 즉 '복음'이라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상의 내용은 멜랑히톤과 유사하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는 이러한 복음으로서의 예정론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electio in Christo*)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나는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도식을 만든다. 아르미니우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 선택의 대상이 '믿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미니우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을 받을 만하게 하는 모든 원인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모든 행위들을 제외시킨다.[100]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다름 아닌 죄인들임을 의미한다.[101] 그러나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신다.[102] 이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어떤 공로나 가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될 자들이다.[103] 아르미니우스는 자신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은혜롭고 구속하시는 사랑은 오직 믿는 자에게 향한다. 사랑은 그리스도, 즉 사랑의 아들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100) J. Arminius, *Theses Theologicae.*, 4: "Hoc beneplacitum non modo excludit omnem causam, quam ab homine sumere potuit aut sumere fingi potuit: verum etiam amolitur quicquid in homine vel ab homine erat, quod Deum juste permovere poterat,..."

101) J. Arminius, *Theses Theologicae.*, 7.

102) J. Arminius, *Examen Thesium.*, 68-69.

103) J. Arminius, *Theses Theologicae.*, 7: "Fideles autem dicimus non qui tales propriis meritis aut viribus erant futuri, sed qui Dei beneficio gratuito & peculiari in Christum erant crediturí."

있지 않은 자는 믿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의 구속하시는 방식에서 오직 믿는 자만을 사랑하신다."[104] 여기에서 믿음이 강조된다. 엡 1:4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말은 믿음과 연결된다.

여기서 아르미니우스는 믿음이 공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거부한다. 그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떠한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지 않게 되며, 개혁파와 거리를 둔다. 그는 믿음을 공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선택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됨으로 공로 아닌 공로가 된다.

이와 함께 유기는 믿음의 반대인 불신과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유기를 당하는 것이다. 유기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믿지 않게 될 불신자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다.[105] 유기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행위이다. 이로 인하여 불신은 유기와 연관되어 있다. 유기의 실질적인 원인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불신앙이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가 개혁파 신학자들을 가장 극명하게 비난한 내용이기도 하다.[106]

그렇다면 선택과 유기의 원인이 되는 신앙과 불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르미니우스는 이에 대하여 신론에서의 논리적인 관계를 정의하지 않

104) J. Arminius, *Examen Thesium.*, 68: "Dilectio gratuita ad salutem non est nisi fidelium: dilectio enim est in Christo dilectionis filio... ergo non diligit ad salutem nisi fidelem."

105) J. Arminius, *Theses Theologicae.*, 11: "Decretum irae seu severae voluntatis Dei, quae ab aeterno statuit infideles, qui culpa sua & justo Dei judicio crediturі non sunt, ut extra unionem Christi positos, condemnare ad mortem aeternam,..."

106) W. den Boer, "Met Onderscheidingsvermogen: Arminius' waardering voor enkritiek op Calvijn en diens theologie," in *Theologia Reformata*, 52/3, 2009, 266-269: "De kern van Arminius' moeitemet Calvijs theologie is duidelijk: de consequentie ervan zou zijn dat Godauteur der zonde is."

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이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예지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며, 하나님의 의지는 그 분의 아심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가 주지주의적인 입장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를 둔다. 아르미니우스에게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정의 형태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선택되었으며,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유기되었다는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에 달렸다. 여기에서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고마루스의 이해, 즉 작정되지 않은 예지와 작정된 예지를 나누는 것을 비판한다.

아르미니우스의 예정론은 여러 면에서 온건한 개혁파의 예정론과 유사한 면이 있다. 특별히 그가 복음과 예정을 동일시한다던가, 혹은 완전한 그리스도중심적인 선택론, 혹은 죄, 또는 불신을 유기의 원인으로 본다던가 하는 것마저도 이미 개혁파 신학자들에게서 어느 정도 나타나며, 특별히 멜랑히톤과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내용이 첨가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특별히 선택을 조건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믿음은 공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IV. 결론: 개혁 교회 안에서의 스펙트럼

종교 개혁 당시 유럽의 개혁 교회를 이끌었던 네 명의 신학자들의 예정론과 개혁 교회와 구별되던 대표적인 신학자의 예정론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예정론은 신론과 그리스도론의 두 기둥 위에서 구성되고 있으며 어디에 더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서 독특한 특성들이 나타난다.

테오도르 베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지를 중심에 두는 신론중심적인 사고가

전면에 있다. 이로 인해서 그에게는 전택론적인 성향이 전면에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칼빈과 불링거는 예정론 안에서 신론적 이해와 그리스도론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특징이 보이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두 내용이 균형있게 제시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운 선택이 함께 나타난다. 이로서 예정론은 사람의 공로를 배제하고 오직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그의 예정에 대한 이해는 구원론 뿐만 아니라 교회론에서도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면에서 칼빈의 신학에서 예정론은 - 다른 신학자들보다도 가장 - 폭넓게 펼쳐져 있다.

불링거에게는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그리스도론 중심적인 선택론이 강조된다. 불링거에게는 형태적으로는 이중 예정론이 나타나지만, 선택의 은혜가 전면에 나타난다. 그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중심적인 선택론은 다분히 목회적이며, 유기에 대한 가르침은 약화되어 있고 그 원인에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도 받아들이기에 무리없어 보인다. 이에 비하여 멜랑히톤은 예정에 대하여 전혀 다른 입장으로 접근한다. 예정을 복음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교리로 이해하여, 신론이 배제된다. 그에게 있어 예정은 구원론적인 의미가 약화되며, 예정론 자체의 의미가 거의 없다. 오히려 교회론을 뒷받침하는 가르침으로서 역할을 한다. 보이는 교회 자체가 택자들의 모임이라는 그의 이해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적인 강조점이 보인다.

이들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예정론은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의 경계선 안에서 여러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리고 그 한계는 '구원의 은혜성'이다. 이 '구원의 은혜성'을 넘어설 때에는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해야 하는 가르침으로 판단받는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아르미니우스의 예정론이다. 그는 여러 면에서는 멜랑히톤의 예정론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은혜보다 앞세운다는 것이다. 이로서 아르미니우스는 종교 개혁의 '오직 은혜'의 정신을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예정론에 대한 역사적인 논쟁들은 교회가 예정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가를 보게 한다. '이중 예정론을 가르쳐야 하는가, 혹은 선택론에 머물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각 교회의 측면에서는 허용적일 수 있으며, '은혜의 우선성' 또한 '은혜의 완전성'이라는 한도 내에서 예정론은 다양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은혜'로 인한 성도의 구원과 교회를 향한 위로이다. 그리고 이 위로 위에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